

# 11

## 청계상가에서 시작된 근로자복지의원

1971년, ‘청계상가 근로자복지의원’의 개원식이 열렸다.

TV와 라디오 방송국은 물론 신문사 기자들까지 서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들, 눈길이 닿는 곳마다 기자들이 있었다. 청년 전태일의 장례식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었다.

### 청계피복상가, 그 암울했던 기억들

청계천로의 끝자락에 자리잡은 평화시장. 1960년대, 청계천을 복개한 자리에 고가도로가 만들어졌고, 그 옆의 허름한 집들은 허물리고 아파트 상가 건물이 들어섰다. 이 건물에 영세 피복제조

업체 450여개가 입주했고, 7천여명의 직공들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건물로 들어갔다 창밖이 어둡어둡해질 무렵 건물 밖으로 몰려나왔다. 대부분 여성 근로자들이었고, 그 사이로 아직 젖살이 채 빠지지 않은 어린 모습도 눈에 띄었다.

피복제조업체의 사장들은 한 개의 층을 상하 두 칸, 복층형태로 개조했다. 섬유에서 날리는 자욱한 먼지와 재봉틀 소음 속에서 직공들은 정수리 바로 위에 달린 희미한 조명에 의지하여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하루 열세 시간씩 일했다. 복도에는 다림질을 위한 연탄화로가 굴뚝도 없이 놓여 있었고, 창문은 모두 못질로 막혀있었다. 쌀 한 가마니가 5,000원이던 시절, 이들의 일당은 50원, 잘 받아야 70원이었다.

이들은 취업할 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고 취업 후에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이 있는 지도 몰랐던 시절이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처럼 개인의 건강과 안전은 '개발정책의 성공과 함께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이 도처에 깔려있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는 이러한 막연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 전태일은 이런 실체 없는 믿음에 커다란 물음표를 남기며 자신의 몸을 태워 항거했다.

## 근로자복지의원으로 시작된 산업보건

노동청은 '전태일 분신사태'의 수습을 위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로 하여금 평화상가에 근로자복지의원을 세워 무료진료와 산업보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1971년 2월, '청계상가 근로자복지의원(이하 근로자복지의원)'이 왕규선 박사를 원장으로 하여 개원했다. 평화상가 4층이었다.

근로자복지의원은 접수실과 진찰실, X-ray실, 임상병리실을 갖추고 있었다. 의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노동청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 근로자복지의원의 임대료, 엑스선 촬영기 1대,

청계천 평화상가 봉제공장(1970년대 초)



근로자복지의원 개소식(1971)



진찰대, 소독기, 신장계, 체중계, 시력계, 청력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진료기구와 의약품까지 노동청의 설립보조금으로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었다. 노동청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각 1명씩의 인건비 연간 총 600만원을 지원해주었다. 당시로써는 꽤 큰 금액이었다.

### ‘그림의 떡’ ... 확산 필요성 제기

근로자복지의원은 기본적으로 무료진료를 표방했지만, 약값의 원가는 근로자 부담이었다. 또 근로자복지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영세민 진료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당시 종합병원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항목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명동에 있던 성모병원 부속 자선진료소가 가끔씩 근로자복지의원의 업무를 보조해주곤 했다.

### “브리핑보다 더 중요한 일” 급하게 준비한 계획서

청계사가 근로자복지의원이 설립된 지 1개월 쯤 뒤에 대한산업보건협회로서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이 무렵 대한산업보건협회와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하던 노동청의 연구용역사업이 완료되어 그 결과에 대해 협회 회장과 부회장이 노동청장에게 브리핑하기 위해서 노동청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분이 (노동청에) 들어간 뒤 얼마 안 지나서 급히 돌아와 연구소와 협회 직원들을 모두 모이라고 했다. 그리고 노동청에 갔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브리핑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면서 모종의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광목, 「한국 산업위생의 뿌리와 가지」, 한국 산업위생학회. p.66

### 일사천리로 진행된 근로자복지의원 개설

그리고 1개월 후, 안양과 시흥을 비롯하여 전국의 사업장 밀집지역마다 근로자복지의원을 개원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오라는 지시가 정부로부터 내려왔다.

전라남도 근로자복지의원 개원식(1971)



협회에서 급하게 선정한 곳은 시흥, 인천, 대전, 광주, 대구와 부산이었고, 정부의 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근로자복지의원이 개설되었다. 지방의 근로자복지의원도 청계상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엑스선 촬영기를 비롯하여 의료장비, 건물 임대료, 의사와 간호사, 기사들의 임금은 노동청에서 보존해주고 운영만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관장했다.

## 경영난과 교수들의 자원봉사

개원후 3여년이 경과한 1973년 말,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월급을 받지 못한 상근 의료진이 근로자복지의원을 떠났다.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곳의 의료수가를 일반의원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들은 청계상가 근로자복지의원을 떠났고, 질병은 점점 만성화 되어갔다.

이런 소식이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에 알려지자, 이 기관에서는 병원건물보증금 300만원과 검진차량 1대, 의료기자재, 의약품 1천여만원 어치를 청계상가 근로자복지의원에 지원했다. '메리놀 수녀원'에서도 1년간 결핵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고, 가톨릭구제회에서도 많은 의약품을 기부해주었으나 청계상가 근로자복지의원의 업무가 정상화되기에는 부족했다.

1980년, 조규상 교수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청계상가 근로자복지의원을 다시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여기에 호응한 분들이 가톨릭대학 의학부 예방의학교실에 재직중이던 윤임중 교수(제4대 협회 회장), 박정일 교수(제6대 협회 회장), 이세훈 교수(협회 이사), 이원철 교수로, 이들은 매주 월, 수, 금요일 낮 12시부터 두 시간 동안 번갈아 복지의원에 와서 환자를 진료했다.

진찰료와 약대도 일반 의원에 비해 낮췄다. 일반병원에서 8,000원에 찍는 엑스선 촬영을 이곳에서는 3,000원이면 찍을 수 있었다. 대학교수들의 무료봉사 덕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후 청계상가 근로자복지의원은 가톨릭대학에서 파견한 간호사 한 명이 상근하다가 1991년 철수하면서 폐쇄되었다. ☹️

근로자복지의원은 접수실과 진찰실, X-ray실, 임상병리실을 갖추고 있었다.

